



지켜야 할 전화예절



지켜야 할 전화예절

- ① 마주 대화하는 것처럼 응대한다. 상대방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삼가게 된다.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하면 어투도 따라서 부드러워진다.
- ② 잘못 걸려온 전화도 정중하고 친절하게 받는다. 일이 한창 바쁠 때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 무뎠다대 대꾸하기 쉬운데 어떤 전화이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 ③ 항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이다. 상대방이 말로 화를 내도 담담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차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또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오히려 잘못을 막 바로 지적하지 말고 성의껏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④ 전화가 도중에 끊겼을 경우 통화 도중에 전화가 끊어졌을 때는 건 쪽에서 다시 거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가 손님이니 뒷사람일 경우에는 받는 쪽에서 거는 것이 예의이다. 전화예절을 톺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하여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명품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무실로 걸려온 항의 전화를 받아보면 음성이 격앙되어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전화 하나 받기도 쉽지가 않다. "신문 보내지 마세요."라고는 딱 끊어버린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명단을 삭제하겠는가?

다음호 신문이 나가고 나서 또 전화가 온다. "신문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하고는 또 끊어버린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신전화로 전화를 한다. "여보세요? 승리신문사입니다. 승리신문 보내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주소를 말씀해 주셔야 명단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다. 그러나 상대의 반응이 더욱 거칠다. "누가 신문 보내라고 했어요? 보내지 말라고 하면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재차 말한다. "네, 그러니까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말하기를 "그쪽에서 보냈으니까 보낸 사람이 알 것 아니에요. 보내지 마세요."하고 또 끊어버린다.

이쯤 되면 인내도 한계에 달한다. 아무리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지만 또 전화를 건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받지를 않는다. 몇 번을 해도 안 받는다. 이렇게 되

면 또 신문이 발송될 것이고 또 항의 전화가 올 것이다. 아이고!... 올바른 전화예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화를 연결하는 요령

- ① 일반전화가 와서 원하는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통화하기에 곤란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도 좋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② 처음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에게는 용건을 물어본 후 연결한다.
- ③ 통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해도 좋은 지 물어볼 때는 상대방에게 이쪽의 말이 들리지 않도록 대기 버턴을 누르거나 송화기를 확실히 손으로 막고 물어보아야 한다.
- ④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도 위의 경우와 같이 알려줘도 될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속담 속의 영생학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라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을 볼 때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다를 중국이 자국의 영해로 편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아 더욱 실감나는 사자성어이다. 만약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갖고 있다면, 중국이 감히 동남아 해양영토에 주도권을 쥐려고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의 이념대결로서 냉전시대가 있었다면, 공산주의가 없어진 지금은 자본과 군사력을 앞세워 경제대국으로서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국가가 되려고 유독 중국과 미국의 다툼은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사드배치 문제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었다.

이긴자가 공산주의를 없앤 의도는 또 다시 군사력을 키워 강국끼리 싸우라고 하신 역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겠다. 이긴자의 말씀인즉, 공산주의를 그대로 두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발로 지구 땅에 인간이 멸절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구세주가 인간이 다 죽고 없는데 구원하겠다고 하면 말이 아니 되므로,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먼저 걸림돌이 되는 유물사관의 이

념을 없앴다고 설명하셨다. 이사가 2장 4절(새번역 성경)에도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관철하시고 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 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27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비무장화 및 국제안보위원회 주최의 투표에서 '앞으로 모든 핵무기를 금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도록 하는 유엔 결의안'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대표를 던짐으로 휴전인간을 추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멸망을 받는다고 써여 있다. "정도령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수 억 만 명이 되어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고 마는 것이다(2008. 1. 1)."라는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틀리기 쉬운 맞춤법②

이번 호에서는 용언 부분에 대한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알아본다. 아래 괄호 속의 말이 올바른 말이다.

거북치 않게 대하다. (거북지, 거북하지)
웬만한 파도에는 끄덕없습니다. (끄덕없습니다.)
빨리 달려고 껴어드는 차 (가려고)
넓적한 나무 (넓적한)
영어 회화가 서툴렀다. (서툴렀다)
낯설은 사람 (낯선)
그는 언젠가 가수가 될런지도 몰라. (될지도)
얼음 갖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장애물에 부딪혔다. (부딪혔다)
택시와 버스가 부딪혔다. (부딪혔다)
택시를 뺏아 가지고 도망갔다. (뺏아)
고향으로 가는 설레임 (설렘)
서랍을 반드시 잠금 주세요. (잠가)
이 옷은 허리가 너무 조여요. (조여요)
행사를 치루고 나니 후련합니다.

(치르고)
저런 칠칠맞은 녀석 같으니. (칠칠맞지 못한, 칠칠맞은)
오해 받기 쉽사이군. (쉽사이군)
자신에게 걸맞은 일 (걸맞은)
한밤중의 나즈막한 노랫소리 (나지막한)
빈칸에 알맞은 말은? (알맞은)
정성이 깃든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다. (깃들인)
어머님이 담궈 주시던 그 장맛! (담가)
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안쓰러운)
세상이 떠들석한 전대미문의 사건 (떠들석한)
퀴즈, 알아맞추는 재미 (알아맞히는)
사무실에 들려. (들러)
병원에서는 흡연을 삼가하십시오. (삼갑시다)
오래된 양말은 헤지가 심상이다. (헤어지기)
아무리 탁달해도 소용없다. (뒹달)
후담지근한 날씨 (후담지근한)
수업중에 졸립거나 (졸리거나)*
이승우 기자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ruths of the Forbidden Fruit 선악과의 진실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선악과라는 것은 사과나 오렌지 같은 진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영이며 마귀의 영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었습니다.

▶ In the Bible, because they ate the Forbidden Fruit, Adam and Eve were cursed by God. In fact, the Forbidden Fruit was not real fruit, like an apple or orange. It was the very spirit of the devil, which has opposed God from even before the beginning of the world.

마귀는 분열의 신, 사망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마귀 때문에 하나였던 존재가 여러 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신은 사망의 신입니다.

▶ Satan is the spirit of separation, Death. Therefore, because of Satan, One became many, as we see it now. God is the spirit of Life, whereas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이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 하나님의 신이 사망의 신, 마귀에 의해 정복당함으로써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신을 지배한 것입니다.

▶ In this world, life and death coexist, and every living creature dies in the long run. This means that the spirit of life, God, is dying due to having been conquered by the spirit of death, Satan. In other words, Satan is dominant over God.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신이 그의 후손들을 부활시켜줄 그 날을 인내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로마서 8장 18절). 이것은 만약 하나님의 신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사망의 영으로부터 석방되어지고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 "all creation is waiting patiently and hopefully for that future day when God will resurrect his children (Romans 8: 18)." This means that, if God were freed from Satan, all creatures would be freed from the spirit of death, and would never rot and die.

결국 우리는 선악과의 진짜 뜻, 사망의 신 마귀를 알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Eventually, we should know the real meaning of the Forbidden Fruit, the spirit of Death, Satan and try to win the Satan.*

by Alice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자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자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니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재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